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무총리령 제219호(2013. 12. 27.) 제정	보 도 자 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일시	2023. 4. 5(수) 11: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3년 4월 4일(화) 14:00	
담당부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경제안보팀 최시훈 팀장(02-731-2440), 양정숙 사무관(02-731-2454)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최인아 팀장(044-414-1049), 신민금 전문연구원(044-414-1169)	

제2차 「아시아 경제정책 자문기구 협의회(ACEP)」 개최

국민경제자문회의-KIEP, 국제회의 개최

- 일 시: 4월 5일(수) 09:30~15:50
- 장 소: 웨스틴조선서울 호텔
- 주 최: 국민경제자문회의
- 주 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부의장 이인호)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2023년 4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서울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제2차 아시아 경제정책 자문기구 협의회(ACEP: Asian Council of Economic Policy) 회의’를 개최하였다.

- ‘아시아 경제정책 자문기구 협의회(ACEP)’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주도 하에, 아시아 지역의 경제 자문기구들과 공통의 경제 현안과 정책 대응을 논의하고 역내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21년 창설되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역내 경제협력 방안(Promoting Regional Cooperation in the Post-Covid 19 Era)’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2차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6개국,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모여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거시·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 회의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주요 경제 자문기구 대표, 아시아개발은행(ADB),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역내 주요 국제기구 전문가, 아세안 국가들의 주한 대사 등이 참여하였다.

< 아시아 경제정책 자문기구 협의회(ACEP) 참여 기관 >

국가	참여 기관
한국	국민경제자문회의 (NEAC: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 (KSP: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말레이시아	경제행동협의회 (EAC: Economic Action Council)
필리핀	필리핀 개발연구소 (PIDS: 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 (SIIA: Singapor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NESDC: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
베트남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 (CIEM: 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

-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팬데믹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는 아시아 지역에게 도전요인이지만 기회요인이며, 아시아가 가진 생산거점, 핵심 원자재 공급처, 거대시장 등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략적 이익을 추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이인호 부의장은 “금일 회의가 참여자들간 현안에 대한 인식 공유와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역내 협력 강화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고 언급하며 “향후 ACEP이 아시아의 대표적 정책 공유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김홍중 KIEP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고물가 지속과 글로벌 통화 긴축 △경제안보에 중심을 둔 공급망 변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통상 이슈의 대두 등 아시아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의 정책 공유가 중요하며, 이번 회의가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와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 특히 김홍중 KIEP 원장은 “경제안보 논리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망 복원력 향상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 금일 회의는 1세션 ‘포스트 팬데믹 시대 역내 경제전망 및 리스크 요인’, 2세션 ‘탈세계화 시기의 역내 공급망 협력 방안’, 3세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하의 역내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 총 3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 한국을 포함한 7개국 자문기구 등의 전문가, ADB, AMRO, UNESCAP 등 역내 국제기구 이코노미스트 등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였다.
- 제 1세션에서는 마누 바스카란(Manu Bhaskaran)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SIIA) 위원 겸 센테니얼아시아자문단 대표가 좌장을 맡아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역내 경제전망 및 리스크 요인’을 주제로 아시아 경제 회복과 전망을 논의하였다.
 - 1세션 발표를 맡은 요틴 진자락(Yothin Jinjarak) ADB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23년 아시아 각국의 실물·금융시장, 정부 재정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나 중국 경제 회복속도, 긴축적 통화정책 등 리스크 요인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남병훈 AMRO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기간 역내 재정여력이 약화되었으며, 향후 재정정책 수립시 △재정적 완충장치 재건과 재정지원간 균형 △경제 여건에 대응한 단기적 조정 △중기적 재정건전화 계획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볼드 바상자브(Ganbold Baasanjav) UNESCAP 동북아사무소장은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해 △UN SDGs △사회안전망의 디지털화 △재정정책의 전방위적 영향 △자연기반해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제 2세션에서는 아니세토 쿠빌 오르베타(Aniceto Cubil Orbeta) 필리핀개발연구소(PIDS) 원장을 좌장으로 ‘탈세계화 시기의 역내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세션 발표를 맡은 한형민 KIEP 부연구위원은 “한국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급망 3법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히며, “향후 국제 공조 및 정책지원, 그린경제 및 디지털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응웬 안 즈엉(Nguyen Anh Duong)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 국제·거시경제연구실 실장은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및 새로운 공급망 체제 적극 가입 △RCEP, CPTPP 등 조화 △산업, 투자, 무역정책간 조화 등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하였다.

- 에디 프리요노(Edy Pri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경제비서관은 “인도네시아는 중소득국 함정 탈출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니켈, 보트사이트, 팜오일 등과 같은 전략자원 중심의 다운스트림 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라고 밝혔다.
- **제 3세션**은 정인교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장(인하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하의 역내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3세션 발표를 맡은 피라팻 탄다바닛(Peerapat Tandavanitj) 태국 국가경제사회 개발위원회(NESDAC) 경제예측국 국장은 “무역활성화를 위해 RCEP, IPEF 등 포괄적인 거대 협정으로의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사이먼 테이(Simon Tay)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SIIA) 소장은 “인태 지역에서 디지털무역협정, 녹색경제 이니셔티브 등이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의 안보전략과 중국의 쌍순환 정책과 같은 강대국간 경쟁 관계를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 프란시스 마크 안토니오 킴바(Francis Mark Antonio Quimba) 필리핀개발 연구소(PIDS) 선임연구원은 “인태지역의 높은 석탄의존도와 탄소배출량 증가세 등을 감안, IPEF에도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위한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도입, 탄소배출 감축 공약 확대 등이 고려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팬데믹 여파로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개최되었던 1차 출범 회의(2021년 11월)와 달리 이번 **2차 회의**는 ❶**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첫 회의이며, 기존 참여기구(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외에 ❷**2개국**(태국, 필리핀) 자문기구와 역내 국제기구의 신규 참여 등 저변이 크게 넓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 이인호 부의장은 “금번 2차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 경제정책 자문기구 협의회(ACEP)’가 역내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향후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등 ACEP의 외연을 넓혀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 불 임 1. 세부 프로그램
- ❖ 불 임 2. 주요 발표내용
- ❖ 불 임 3. 행사 사진

❖ 불 임 1. 세부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09:30-10:00	개회식
개회사	이인호 (한국)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부의장
환영사	김홍중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ACEP 기관 소개
10:00-10:20	사진촬영 & 커피 브레이크
10:20-11:30	세션 1.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역내 경제전망 및 리스크 요인
좌장	마누 바스카란 (Manu BHASKARAN)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SIIA) 위원 겸 센테니얼아시아자문단 대표
발제 1	팬데믹 이후의 아시아 경제 전망 <i>Asian Development Outlook: Brighter Prospects amid Ongoing Challenges</i> 요틴 진자락 (Yothin JINJARAK) (국제기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경제학자
발제 2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재정정책 제언 <i>Fiscal Policy Consideration in the Post-Pandemic Era</i> 남병훈 (NAM Byunghoon) (국제기구)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수석 경제학자
발제 3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과제 <i>Towards Inclusive Recovery from Covid-19 Impact</i> 간볼드 바상자브 (Ganbold BAASANJAV) (국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장
토론	장용성 (CHANG Yongsung) (한국)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자문위원 겸 서울대학교 교수 피라팻 탄다바닛 (Peerapat TANDAVANITJ)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경제예측국 국장
11:30-13:00	오찬
13:00-14:10	세션 2. 탈세계화 시기의 역내 공급망 협력 방안
좌장	아니세토 쿠빌 오르베타 (Aniceto Cubil ORBETA) (필리핀) 필리핀개발연구소(PIDS) 원장
발제 1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한국의 대응 <i>Challenges and Response of Supply Chain Disruptions in Korea</i> 한형민 (HAN Hyoungmin)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
발제 2	베트남의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참여 전략 <i>Engaging in Global Supply Chains in the New Context: A Vietnamese Perspective</i> 응웬 안 즈엉 (NGUYEN Anh Duong)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 국제·거시경제연구실 실장

발제 3	인도네시아의 원재료 국내외 공급 전략 National Interest and Regional Supply of Raw Material: Case of Indonesia 에디 프리요노 (Edy Priyono)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경제비서관
토론	류예리 (RYU Yeri) (한국)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자문위원 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프란시스 마크 안토니오 킴바 (Francis Mark Antonio QUIMBA) (필리핀) 필리핀개발연구소(PIDS) 선임연구위원
14:10-14:30	커피 브레이크
14:30-15:40	세션 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하의 역내 경제협력 확대 방안
좌장	정인교 (CHEONG Inkyo) (한국)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자문위원 겸 인하대학교 교수
발제 1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활성화 방안 Advancing Trade Facilit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피라파트 탄다바닛 (Peerapat TANDAVANITJ)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경제예측국 국장
발제 2	인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무역 확대 방안: 기회와 도전 Boosting Digital Trade in the Indo-Pacific: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사이먼 테이 (Simon TAY)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SIIA) 소장
발제 3	IPEF를 통한 청정에너지 전환: 필리핀의 관점에서 Clean Energy Transition through IPEF: Perspectives from the Philippines 프란시스 마크 안토니오 킴바 (Francis Mark Antonio QUIMBA) (필리핀) 필리핀개발연구소(PIDS) 선임연구위원
토론	강인수 (KANG In Soo) (한국)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자문위원 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응웬 안 즈엉 (NGUYEN Anh Duong)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 국제·거시경제연구실 실장
15:40-15:50	폐회식
폐회사	이인호 (한국)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부의장

❖ 불 임 2. 주요 발표내용

세션 1.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역내 경제전망 및 리스크 요인

주제: 팬데믹 이후의 아시아 경제전망

Asian Development Outlook: Brighter Prospects amid Ongoing Challenges

요틴 진자락 (Yothin JINJARAK)

(국제기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경제학자

- 2023년 아시아 각국의 실물·금융시장, 정부 재정여건은 개선될 전망
- 중국 경제 회복속도, 긴축적 통화정책 등 리스크 요인에 유의 필요

- 2022년 말 아시아 실물 경제는 글로벌 수요 약화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2023년 회복 중임.
 - 글로벌 수요 약화로 인한 수출 둔화로 아시아 개도국의 2022년 상반기 성장률은 4.1%에서 하반기 3.9%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내수, 투자가 성장을 지지함.
 - 산업생산을 볼 때 2022년 4분기 약화되었으나 PMI를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대부분의 경제는 밝은 편이며, 2022년말~2023년 초 수출이 주춤하지만 관광업이 회복 중임.
- 2023년 아시아 각국의 금융시장 여건, 정부 재정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임.
 - 금융시장 여건은 2022년 말 개선되었는데, 미국의 통화긴축에도 아시아 개도국 주식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통화가 미 달러대비 강세를 보임.
 - 2022년 각국의 재정수지는 국별로 적자, 흑자 양상이 다양했으나 2023년 대부분 개선될 전망이며 통화 긴축도 완화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선진국의 긴축통화는 지속될 전망이나 그 정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자재가격 또한 현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임.
- 중국의 재개방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반등을 할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적 리스크가 상존함.
 - 중국 경제는 주요 도시의 지하철 이용 등 이동지표로 볼 때 코로나19 이전수준을 회복했으며 PMI 기준 2, 3차 산업 모두 빠르게 회복 중인데 특히 서비스업의 회복이 빠른 편임.
 - 다른 아시아 국가의 건전한 내수 여건은 중국의 회복과 결합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별로 차이가 있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향후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나, 일부 국가 특히 파키스탄, 스리랑카의 인플레이션은 2023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통화정책 제약 연장, 금융 부문의 위험, 인플레이션 등의 부정적 대외 요인도 상존함.
 - 미국을 포함한 선진경제의 인플레이션 완화 정책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어 통화정책의 제약은 좀 더 연장될 수 있음.
 - 최근 미국과 유럽 및 역내 은행의 혼란에서 볼 수 있듯 높은 금리와 부채로 금융 부문의 위험이 존재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식량 안보 문제와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가능성, 글로벌 균열, 기후 변화 등의 도전과제도 존재함.

세션 1.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역내 경제전망 및 리스크 요인

주제: 포스트-팬데믹 시대 재정정책 제언

Fiscal Policy Consideration in the Post-Pandemic Era

남병훈 (NAM Byunghoon)

(국제기구)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 (AMRO) 수석경제학자

■ 팬데믹 기간 역내 재정여력이 약화되었으며, 향후 재정정책 수립시 ▲재정적 완충장치 재건과 재정지원간 균형, ▲경제 여건에 대응한 단기적 조정, ▲중기적 재정건전화 계획,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고려 필요

- 팬데믹 기간 ASEAN+3 국가의 정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정부의 재정 여력을 악화시켰음.
 -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을 볼 때, 싱가포르, 라오스, 일본의 경우 2019회계연도 대비 2022년 30% 이상 증가함.
 - 누적 부채는 만기구조에 따라 상환부담으로 작용하는데,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증가했으며 외채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환율 위험이 가중됨.
- 재정정책의 도전과제로는 △재정 여유 재건 △재정정책의 지속적인 역할 △구조적 당면과제 고려 등을 꼽을 수 있음.
 - 회계연도 기준 2019년 대비 2023년 재정 여력이 개선된 국가보다는 유지 혹은 악화된 국가가 많은 상황이나, 향후 위험에 대비한 재정적 완충장치(Buffer)를 재건할 필요가 있음.
 - 불균등한 경제 회복,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정책 제약, 지정학적 긴장 등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정책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함.
 - 인구 고령화, 인프라 격차, 기후 변화 등 구조적 당면과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포스트 팬데믹 시대 재정정책 수립시 정부는 △재정적 완충장치 재건과 재정 지원간 균형 △경제 여건에 대응한 단기적 조정 △재정 건전화 세부 목표 및 수단을 고려한 중기 계획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팬데믹 이후 확대된 재정 정상화, 재정 건전화, 재정 개혁과 함께 포괄적인 자원 배분을 고려해 재정적 완충장치 재건-적절한 재정적 지원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달성이 필요함.
 -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대응한 단기적 재정적 지원 조치로는 △광범위한 지원 조치 해제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목표 지정 지원 △사회안전망강화와 제도 역량 향상이 필요함.
 - 중기적 재정 건전화 계획은 △재정적자·부채비율과 같은 구체적 목표의 설정 △국가별 상황의 고려 △팬데믹 기간 완화된 재정준칙의 복원이 필요함.
 - 자원 재할당 및 재정 개혁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지출 요구를 고려해야함.
 - 세출 구조조정은 기존 지출 프로그램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 있음.
 - 국가 재정 수요와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자원 재할당이 필요함.
 - 미래의 극심한 조정을 피하기 위해 필수 재정 개혁을 조기에 수행하고 재정, 금융 및 규제 정책 조치를 혼합하여 구조적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소해야 함.

세션 1.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역내 경제전망 및 리스크 요인

주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과제

Towards Inclusive Recovery from Covid-19 Impact

간볼드 바상자브 (Ganbold BAASANJAV)

(국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사무소장

- 코로나19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 ▲UN SDGs, ▲사회안전망의 디지털화, ▲재정정책의 전방위적 영향, ▲자연기반해법 등 고려 필요
- 단, 코로나19 기간중 증가한 부채부담을 고려, 혁신금융, 협력금융 논의 필요

- ☐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전방위였는데, 1인당 GDP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국가 비중은 1, 2차 세계대전, 대공황, 글로벌 금융 위기시보다도 높음.
 -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불평등성장, 공급망 및 노동 혼란, 보건·복지 시스템 과중 등의 문제를 겪었으며 정치적 불안정과 갈등, 신용 조건 강화 등의 새로운 당면과제에 직면함.
 - 코로나19의 영향은 기존의 취약성과 함께 새로운 빈곤층, 새로운 취약층을 유발함.
- ☐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 △UN SDGs △사회안전망의 디지털화 △재정정책의 전방위적 영향 △자연 기반의 해법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에 UN SDGs를 반영할 필요 있으며, 사회적 보호 시스템 보편화, 학습자 세대의 보호, 성평등 증진, 포괄적인 녹색 경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 있음.
 - 사회안전망의 디지털화를 통해 수급자 경험 및 효과 개선, 누락 등의 실수 감소,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 낮은 운영비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음.
 - 디지털 기기 활용도가 낮은 취약계층 배제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존재함.
 - 재정정책은 소득 상위 혹은 하위 분포의 국민에게, 불평등 형성 사전 혹은 사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고려해 미래 충격에 대비할 필요 있음.
 - 교육, 보건, 기초 인프라 등의 사전적 분배, 상속세, 누진세, 사회보험 등의 재분배
 - 실제 중하위소득국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학습 빈곤을 경험 중임.
 - 팬데믹 이후 여성 대상의 성폭력은 가정내 발생 빈도가 증가함.
 - 기후 위기를 완화하며 자연 기반의 해법을 통해 일자리 창출 가능함.
- ☐ 다만 코로나19 기간 증가한 부채 부담을 고려할 때 혁신 금융, 협력 금융 논의가 필요함.
 - 코로나19 기간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부채 부담이 증가했는데 특히 개도국의 부채 수준이 증가하는 등 재정 여력 측면의 도전과제에 직면함.
 -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달성하고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후-채무 스와프'와 같은 혁신금융, 대내외-민관 모두의 협력 금융이 필요함.
 - 이처럼 특정 주제 혹은 특정 영향 채권은 기후 및 녹색 경제 사업을 위한 대안적 자금원이 될 수 있음.

세션 2. 탈세계화 시기의 역내 공급망 협력 방안

주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한국의 대응

Challenges and Responses of Supply Chain Disruptions in Korea

한형민 (HAN Hyoungmin)

(한국) KIEP 부연구위원

- 한국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내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공급망 3법 등 추진
- 안정적 인력 이동을 위한 국제공조 및 정책지원, 무역개방화를 위한 국제공조, 그린 경제 및 디지털화에 대한 대비 필요

- 최근 등장한 코로나19와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글로벌 공급망 단절을 경험 중임.
 - 특히, 미-중 갈등은 기존 효율 중심의 공급망을 경제안보 논리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양국의 투자 제재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음.
 - 미국은 반도체 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중국산 원자재와 중간재를 자국 및 동맹국 생산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진행 중
 - 중국은 쌍순환 전략과 희토류 관리 초안 등을 통해 자국 공급망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희토류와 같은 미래 산업 필수 중간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
 - 한국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공급망은 아시아, 미주, 유럽과 긴밀히 연결
 - 최근 한국의 공급망은 중국, 일본, 대만과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과의 연계성도 높아지는 중
- 한국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 중임.
 - 한국 정부는 공급망 관련 전략 대응으로 '수출경쟁력 강화전략' 내 공급망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정부 차원의 공급망 대응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급망 3법(공급망 기본법, 소재부품 장비 산업법, 자원 안보 특별법)을 추진 중
-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양자, 다자간 공급망 협의 참여와 그린 경제 및 디지털화의 공급망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외부 충격 시 유연한 생산 기술 변경 및 공급망 다변화와 관련 업체 협력을 위해서는 안정적 인력 이동을 위한 국제 공조와 정책 지원이 중요
 - 수출 제한 및 통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원재료/중간재 이동 지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 충격에도 변함없는 무역 개방화(Trade Openness) 국제 공조가 필요
 - 코로나19 이후 다수의 기업이 생산에 있어 디지털, 자동화, 로봇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그린 경제에 대한 주요국의 움직임은 중장기적으로 국제 생산 비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

세션 2. 탈세계화 시기의 역내 공급망 협력 방안

주제: 베트남의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참여 전략

Engaging in Global Supply Chains in the New Context: A Vietnamese Perspective

응웬 안 즈엉 (NGUYEN Anh Duong)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 국제·거시경제연구실 실장

■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및 새로운 공급망 체제 적극 가입, ▲RCEP, CPTPP, EVFTA 등 조화, ▲산업, 투자, 무역정책간 조화, ▲순환경제모델, 무역의 디지털화, 디지털 बैं킹 도입 촉진 등 추진

- ☐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은 다양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 세계 경제는 최근 질병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고금리 지속과 금융기관 파산, 미·중 통상마찰 등으로부터 회복되거나 안정되는 추세
 - IMF는 아시아 신흥국과 미국의 성장 회복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2023. 1)
 - 기후변화가 향후 경제성장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디지털 대전환, 그린 경제 추진, 세계화 위축기(deglobalization)의 FTA 체결 등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
- ☐ 베트남은 최근 FTA를 활발하게 추진한 결과 세계 주요 지역이나 국가와 무역보완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크게 확대됨.
 - 베트남은 아세안 + 1 FTA(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홍콩) 뿐만 아니라 RCEP과 CPTPP에도 참여하였고 그 외 다양한 국가나 지역과 FTA를 체결
 - 베트남의 상호 무역보완성(무역보완도지수와 무역결합도)은 동아시아(한, 중, 일, 아세안) 및 미국과 높은 수준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참여는 FTA를 통해 확대되었으며, 특히 동아시아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확대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투자자로부터 기술이전 효과를 크게 향유
- ☐ 베트남은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을 극복함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을 추진 중임.
 - 베트남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FTA 활용률 저조, 동아시아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 지속, 공급망 불안, 아시아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 등이 있음.
 -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① 기존 및 새로운 공급망 체제 적극 가입 ② RCEP, CPTPP, EVFTA 등의 조화 ③ 산업, 투자, 무역 정책 간 조화 ④ 안정성 강화 및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순환경제모델, 무역의 디지털화, 디지털 बैं킹 등 도입 촉진 등이 필요

세션 2. 탈세계화 시기의 역내 공급망 협력 방안

주제: 인도네시아의 원재료 국내외 공급 전략

National Interest and Regional Supply of Raw Material: Case of Indonesia

에디 프리요노 (Dey PRIYONO)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경제비서관

- 인도네시아는 중소득국 함정 탈출 및 선진국 진입을 위해 전략자원 중심의 다운스트림 산업(니켈, 보크사이트, 팜오일 등) 육성 적극 추진
- 원재료에 부가가치를 더한 중간재나 최종재 중심의 국내외 공급 정책, 외국인 투자유치 등 중점 추진

- ☐ 인도네시아는 중소득국 함정 탈출 및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전략 자원 중심의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 중임.
 - 이는 조코위 대통령의 최우선 지시사항이기도 하지만, 각종 법률과 정책에도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
 - 인도네시아는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부가가치 증대, 경제성장 가속, 고용 창출, 산업구조 재편, 무역수지 개선과 외환보유액 증대 등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추구
- ☐ 인도네시아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다운스트림 산업은 니켈, 보크사이트, 팜오일 등임.
 - 니켈은 세계 최대 매장량(세계 전체의 22%)과 생산량(세계 1위)을 자랑하는 핵심 자원으로,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니켈을 바탕으로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추진
 - 보크사이트는 매장량 세계 6위, 생산량 세계 5위의 핵심 자원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6월부터 원광 수출을 금지할 예정
 - EU가 팜오일(CPO)을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치명적인 상품으로 지정할 계획임에 따라 세계 최대 팜오일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국내 추가 수요를 적극 발굴
 - 인도네시아는 세계 전체의 58.6%를 생산하고 있고 전체 생산량의 65%를 중국, 인도, EU-27, 파키스탄 등으로 많이 수출
- ☐ 인도네시아는 핵심 자원을 원광 형태가 아닌 부가가치를 더한 중간재나 최종재 중심으로 국내외 공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와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 중임.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 가공공장 건설이나 투자 촉진, 내외국인 비차별적 대우 보장, SEZ 제공 등을 통한 비즈니스 활동 지원, 각종 설비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산업 인프라 제공, 비즈니스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

세션 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하의 역내 경제협력 확대 방안

주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활성화 방안

Advancing Trade Facilit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피라파트 탄다나빗 (Peerapat TANDAVANITJ)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경제예측국 국장

- 무역활성화를 위해 RCEP, IPEF 등 포괄적인 거대 협정으로의 통합 노력 필요
- IPEF를 통한 통합과정에서 ▲표준·규정·절차 등의 통일·투명·국제화 ▲비관세장벽해소 ▲서비스자유화 ▲자본 및 숙련인력 이동 확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등 도전과제 존재

- ☐ 글로벌 경제, 특히 신흥국의 경우 팬데믹 이전 시기에 비해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 국가들의 무역 제재로 인해 글로벌 무역 위축도 우려되는 상황임.
 - 2022년 IMF 분석에 의하면 2022-2027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및 무역량이 기존에 비해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팬데믹 이후 글로벌 무역이 회복 추세이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한 무역 제재 증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증가가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음.
- ☐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인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무역자유화의 접근법을 스파게티볼(Spaghetti Bowl)에서 국수볼(Noodle Bowl)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수많은 FTA들이 얹혀있는 스파게티볼의 혼란을 벗어나 RCEP, CPTPP, IPEF 등 거대경제협정을 중심으로 간소화된 국수볼(Noodle Bowl)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특히 최대 경제 규모(약 40%)를 보유한 IPEF를 주목해야 할 상황임.
- ☐ 기존 FTA 중복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인 거대 협정으로의 통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세안 또한 기존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서 RCEP, IPEF 등 거대 협정으로의 통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세안경제공동체(AEC)도 무역활성화 프레임워크(ASEAN Trade Facilitation Framework) 및 환경·노동·지재권·경쟁법 등 보다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의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음.
 - 향후 IPEF를 통한 통합 과정에서 요구되는 도전과제(Key Challenge)로는 ①표준·규정·절차 등의 통일·투명·국제화 ②비관세장벽해소 ③서비스자유화 ④자본 및 숙련인력 이동 확대 ⑤민감 및 제외품목 최소화 ⑥국제 ESG 표준 적용 ⑦인접국, 역내, 개발수준 등 제한 금지 ⑧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등이 있음.

세션 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하의 역내 경제협력 확대 방안

주제: 인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무역 확대 방안: 기회와 도전

Boosting Digital Trade in the Indo-Pacific: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사이먼 테이 (Simon TAY)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SIIA) 소장

■ 인태지역에서 디지털무역협정, 녹색경제 이니셔티브 등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의 안보전략과 중국의 쌍순환 정책과 같은 강대국간 경쟁관계를 고려한 접근이 요구되며, 디지털협정 추진시 녹색조항 추가를 적극 고려 필요

- 복합위기와 기회가 상존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디지털 무역 무역협정, 녹색경제 이니셔티브 등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
 -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은 △디지털 및 녹색경제 관련 DEA, MoU 다수 체결 △2022년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2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요구 △2023년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함.
 - 향후 디지털 및 녹색경제 관련 공통 표준 채택을 위한 역량 강화와 더불어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디지털 지속가능 넥서스(Digital Sustainability Nexus(DxS))가 요구됨.
 - DxS의 정의: 기술과 시스템의 녹색화, 지속가능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혁신의 활용
 - 아세안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성장에 지속가능성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역내 디지털 통합(국경간 데이터 이동, 전력망), 공통표준, 민관협력 등이 요구됨.
-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중국의 쌍순환전략(Dual Circulation Strategy)과 같은 강대국 간의 경쟁 관계를 고려한 접근이 요구됨.
 - 미중 양국의 경쟁 심화로 경제적인 효율성 보다는 홈쇼어링(Home-shoring) 및 프랜드 쇼어링(Friend-shoring)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에 맞서 중국이 태양광 패널용 칩 수출을 중단을 고려하는 첨단기술 경쟁 및 이분구조(Bifurcation)도 형성됨.
- 최근 IPEF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별 정치 상황, 아세안 특유의 입지, 강대국 경쟁 등 다양한 도전과제가 발현되며, 디지털 협정의 추진 과정에서 녹색 조항의 추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아세안의 경우 IPEF 관련 시장접근(Market Access) 허용 여부, 구속성 vs 자발성 여부, 환경보호 및 노동자 인권 관련 표준 등 특이한 입장이 존재함.
 - 향후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AOIP: ASEAN Outlook on Indo-Pacific)의 관계를 고려한 투명한 규범과 표준 도입이 요구됨.
 - 향후 △CPTPP, RCEP과 같은 역내무역협정 하의 디지털무역 관련 조항 개정 △디지털 및 녹색경제 협정 추진 △DEA 및 DEFA와 같은 디지털 협정에 녹색 조항 추가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세션 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하의 역내 경제협력 확대 방안

주제: IPEF를 통한 청정에너지 전환: 필리핀의 관점에서

Clean Energy Transition through IPEF: Perspectives from the Philippines

프란시스 마크 안토니오 킴바 (Francis Mark Antonio QUIMBA)

(필리핀) 필리핀개발연구소(PIDS) 선임연구위원

■ 인태지역의 높은 석탄의존도와 탄소배출량 증가세 등을 감안, IPEF Pillar 3 청정경제 달성을 위한 다수 정책 이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노력 필요

-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여전히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 및 정책을 수립·이행 중임.
 - 지난 20여년간 에너지 수요가 약 2배 증가하는 가운데 분야별로는 주택과 산업 분야의 에너지 수요 증가, 에너지 유형별로는 석탄 비중 증가와 재생에너지 비중 감소, 온실가스 발생은 발전, 교통 부문이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필리핀은 바이오연료법(2006), 재생에너지법(2008), 에너지효율보존법(2018) 등 3개 법안 및 재생에너지 정책인 ‘국가재생에너지프로그램 2020~2040’을 추진 중임.
 - 국가재생에너지프로그램 2020-2040은 재생에너지 비중 50% 달성, 전기자동차 비중 10% 달성, 온실가스배출 12% 감축 등 다수의 목표 및 이행 전략을 채택함.
- 인도-태평양 지역의 높은 석탄 의존도와 탄소배출량 증가세가 우려됨에 따라 IPEF Pillar III 청정경제 달성을 위한 다수 정책 이행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대다수가 여전히 석탄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경제성장에 따라서 탄소배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IPEF Pillar III 청정 경제(Clean Economy) 달성을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인프라 △청정제조업 및 혁신 △에너지 효율 표준화 △재생에너지 투자 △탈탄소화 정책 등이 요구됨.
 - IPEF의 경우 시장접근 및 관세인하 협상 회피, 청정경제 관련 펀딩 및 인센티브 부족 등의 한계가 발견되며, 미국의 CPTPP 탈퇴 사례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 이후 IPEF 지속 여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함.
- 신재생에너지의 화석연료 대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 IPEF에도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협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인센티브 도입 △스마트그리드 구축 △Pillar III에 청정에너지 포함 △청정에너지무역협정 △쿼드플러스를 통한 청정에너지 협력 △글로벌 에너지대화 △시장 및 규제 개혁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통합 △모범사례공유 △데이터 통계 기반 의사결정 강화 등 다수 정책 제언을 제시함.
 - 향후 IPEF 이행 논의에서도 공동의 이익, 규범기반 시스템, 탄소배출 감축 공약 확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붙임 3. 행사 사진(추가)

[사진1] 단체 사진



▲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부의장 이인호)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2023년 4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서울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제2차 아시아 경제정책 자문기구 협의회(ACEP: Asian Council of Economic Policy) 회의’를 개최하였다. 아랫줄 왼쪽에서 세 번째 김홍중 KIEP 원장, 왼쪽에서 네 번째 이인호 NEAC 부의장.

[사진2]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부의장 개회사



▲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부의장 이인호)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2023년 4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서울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제2차 아시아 경제정책 자문기구 협의회(ACEP: Asian Council of Economic Policy)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부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3] 김홍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환영사



▲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부의장 이인호)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2023년 4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서울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제2차 아시아 경제정책 자문기구 협의회(ACEP: Asian Council of Economic Policy)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홍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4] 행사 전경 사진



▲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부의장 이인호)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2023년 4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서울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제2차 아시아 경제정책 자문기구 협의회(ACEP: Asian Council of Economic Policy) 회의’를 개최하였다.